



연합뉴스
특파원·통신원이
전하는 세계는 지금

m1

“자선단체 기부보다 市 재정난 해결이 먼저” 로마 트레비 분수 동전, 시 예산으로 쓴다

글 현윤경 로마 특파원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이탈리아 로마 시가 로마의 대표적 명소인 트레비 분수에 던져진 동전을 시 예산으로 쓰기로 했다. 라 레푸블리카 보도에 따르면 로마 시는 그동안 가톨릭 자선단체에 기부돼 온 트레비 분수의 동전을 내년 3월부터 로마 시 예산으로 편입, 시 당국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자금원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은 136억 유로(약 17조7천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떠안고 있어 쓰레기 수거, 대중교통 등 도시의 기본적인 인프라 개선에 투자할 여력조차 없는 로마 시의 고육책으로 풀

이된다. 트레비 분수에 쌓이는 동전은 매년 약 100만 유로(약 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의 경우 약 140만 유로가 수거돼 가톨릭 자선단체 카리타스에 기부됐다. 카리타스는 이 돈을 빈곤 가족의 식품 자원과 노숙자들을 위한 급식소와 난민 쉼터 운영에 썼다. 그리스 신화 속 인물들을 형상화해 제작한 높이 26m 규모의 트레비 분수는 건축가 니콜로 살비의 설계에 따라 1762년 완성된 바로크 양식 건축물이다. 이곳에 동전을 던지면 로마에 다시 올 수 있다

는 속설에 따라 전 세계 관광객의 주머니에서 나온 동전이 끊이지 않고 바닥에 쌓이고 있다. 한편 로마 시는 트레비 분수에 들어가거나 신체의 일부를 담그고, 분수 주변에서 음식을 먹는 등 예의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과도 거액의 벌금을 부과해 부족한 재정을 메우고 있다. 지난 7월에는 60대의 영국 여성이 트레비 분수에 들어가 450유로(약 59만원)의 벌금 고지서를 받았다.



영국, 자율주행차 일반도로 운행시대 연다

글 황정우 런던 특파원



영국 정부가 앞으로 4년 내 자율주행차가 일반 차량과 함께 일반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는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필립 해먼드 영국 재무장관은 대중지 '더 선'에 기고한 글에서 "2021년까지 영국 도로에서 완전한 자율주행차가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먼드 장관은 "자율주행차는 한때 개발자들의 꿈에 그쳤지만, 조만간 현실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이를 방관하고 지켜보기만 하거나 혹은 이에 대비하고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안은 영국을 이 분야에서 세계 선두로 만드는 계획들, 개발자들이 자율주행차를 만들고 시험하는 최적지로 만드는 계획들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2035년까지 영국 내 자율주행차 시장이 280억파운드(약 42조원)에 달할 것이며 이는 수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뜻한다고 해먼드는 강조했다.

영국 정부는 이미 자율주행차 시험에 1억파운

드(약 1천500억원)를 투자한 데 이어 지난 3월 발표한 2017~2018회계연도 예산안에서도 1억파운드를 추가 할당할 바 있다.

이와 함께 영국 하원도 지난달 정부가 제출한 자율주행차·전기차법안(Automated and Electric Vehicles Bill) 심의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법안은 자율주행차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교통사고를 낸 자율주행차가 피해자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 등 자율주행차 시대 도래에 앞서 보험 관련 사안들을 마련해두는 것이다.

이미 영국에선 재규어랜드로버가 최근까지 수주일 동안 중부 도시 코번트리 시내 공공도로에서 자율주행차 운행을 시험하고 있다.

이전까지 시험 운행은 일반 차량이 다니지 않은 도로에서만 허용됐거나 일반 도로상 시험 운행은 아주 짧은 기간에만 국한됐었다. 차량, 보행자들, 교통 신호 등을 감지하는 센서를 단 재규어랜드로버의 시험용 자율주행차가 계속해서 시내 일반도로를 달리며 기능을 시험하는 것이다.

다만 이 차량에는 긴급상황에 대비해 운전자가 타고 있다.



사진 / 픽사베이 제공

미국인 페이스북 뉴스 소비자 충성도 높아 둘 중 한 명 "페이스북에서만 뉴스 본다"

글 김현재 샌프란시스코 특파원



점점 더 많은 미국인이 뉴스를 복수의 소셜 미디어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퓨리서치는 11월 5일 발표한 조사자료에서 미국 성인 4명 중 1명 이상(26%)이 2개 이상의 소셜 미디어 사이트로부터 뉴스를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는 2013년의 15%, 2016년의 18%에서 많이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페이스북의 뉴스 사용자의 50%는 페이스북에서만 뉴스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의 21%, 트위터의 18%, 링크트

인의 15%에 비해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단일 플랫폼을 통한 뉴스 취득이 월등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또 2개 이상의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한 유튜브 뉴스 사용자의 68%와 트위터 뉴스 사용자의 62%가 뉴스 공유 사이트로 페이스북을 지목했다.

페이스북의 이용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20억 명을 넘어서면서 광범위하게 소셜 네트워크 사용자의 뉴스 소비 패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퓨리서치는 보고서에서 "각 사이트의 뉴스 사용자가 다른 사이트에서 뉴스를 받는 정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서 페이스북이 압도적으로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의 뉴스 소비를 지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양한 소셜 미디어로부터 뉴스를 얻고 있는 미국 성인들은 대개 비백인이며 젊은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2개 이상의 소셜 미디어에서 뉴스를 얻고 있다고 답한 약 47%의 뉴스 소비자들이 히스패닉을 포함한 비백인이었다. 한 개의 소셜 미디어로부터 뉴스를 얻고 있는 사람 가운데 비백인은 26%였다.



로이터-연합뉴스

U4

유엔 “전 세계 무국적 인구 300만 기본권 못 누려”

글 이광철 제네바 특파원

유엔난민기구(UNHCR)는 국적을 갖지 못한 사람이 전 세계에서 최소 300만 명에 이른다며 2024년까지 이들에게 국적이 부여될 수 있도록 각국이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유엔난민기구는 '여기가 우리 집이다(This is our home)'라는 보고서에서 미얀마 로힝야족과 시리아 쿠르드족, 옛 유고연방의 집시, 케냐 펴버족 등이 무국적자로 방치된 채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난민기구는 무국적자들이 대부분 거주지

에서 소수자이기 때문에 다수로부터 핍박받고 있다면서 최근 미얀마 군부의 탄압으로 60만 명이 방글라데시로 탈출한 로힝야족을 사례로 꼽았다. 캐럴 배첼러 UNHCR 국제보호담당 국장은 "국적 없이 산다는 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정체성이나 신분 증명 서류 등을 갖지 못하는 것뿐 아니라 직업과 교육의 기회도 빼앗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로힝야족이 미얀마 정부로부터 의도적으로 배척당하는지와 관련해 "미얀마에는 국민으로 인정하는 법체계가 있지만, 로힝야족은 그 체계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면서 "결과만 놓고 보면 배척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랜 기간 실질적으로는 한 국가의 영토에 거주하고 있지만 국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해당 국가가 국적을 부여할 것을 촉구하면서 태국, 케냐의 사례를 들었다. 태국에서는 2012년 이후 3만 명이 국적을 취득했고 케냐에서도 4천여 명의 마콘데족이 지난해 43번째 정식 부족으로 등록돼 국적을 갖게 됐다. 유엔난민기구는 "태국과 중앙아시아, 러시아, 서아프리카 등에서 무국적자가 줄고 는 있지만 2024년까지 무국적자를 없애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더 많은 사람이 국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HK

홍콩에 ‘평당 6억6천만원 아파트’ 등장

글 안승섭 홍콩 특파원



홍콩에서 평당 7억원에 육박하는 가격에 아파트가 거래돼 아시아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가격으로 기록됐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홍콩의 고급 주거지역인 피크 지역에 있는 마운트 니컬슨 단지에서 최근 아파트 두 채가 11억6천만 홍콩달러에 한 구매자에게 팔렸다. 이 가운데 한 채는 5억6천만 홍콩달러(약 790억 원)에 팔렸는데, 제곱피트당 가격으로 따지면 13만2천 홍콩달러(약 1천850만원)다. 1평이 35.583제곱피트이므로, 평당 가격이 무려 6억6천만원에 달하는 셈이다. 이는 홍콩, 도쿄, 싱가포르 등 아시아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도시 내에서도 최고 가격으로 팔린 아파트라고 부동산 중개업체는 전했다. 마운트 니컬슨 단지는 홍콩인들이 가장 선호

하는 주택지인 피크 지역에 19채의 주택과 48채의 아파트로 이뤄진 단지다. 홍콩의 주택가격은 1997년 홍콩 주권반환 이후 중국 본토의 자금이 홍콩에 유입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2003년 이후 43% 상승했으며, 올해 9월까지 18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한 국제연구단체의 조사 결과 세계 406개 도시 중 홍콩이 집값이 가장 비싼 도시로 기록됐다. 집값 급등 문제는 지난 7월 취임한 캐리 램(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정책 과제로 남아 있다.



몸무게 5t 코끼리 수술에 수의사 등 30여 명 참여

글 국기현 멕시코시티 특파원



사진 / 엘 티엠포 누리집 갈무리

콜롬비아에서 고령의 코끼리가 금이 간 상아 수술을 받았다.

엘 티엠포 등 현지언론 보도에 따르면 몸무게가 5t 나가는 아프리카 코끼리 '탄토르'가 11월 11일 북부 항구도시인 바랑키야 시 동물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탄토르는 3시간가량 전신이 마취된 상태에서 금이 간 상아의 근관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수술 도중 탄토르를 일으켜 세우는 데 필요한 기중기를 설치하기 위해 동물원 인근 도로를 차단했다.

수술은 탄토르가 상아를 다친 2년 전에 해야 했다. 하지만 동물원 측이 대형 척추동물을 잠들게 할 특별 수면제 비용을 확보하지 못한 탓에 뒤늦게 수술이 이뤄졌다.

탄토르의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 100여 명이 십시일반 8천500달러(약 952만원)에 달하는 돈을 모았다.

탄토르의 수술을 위해 맞춤형 치과 장비가 제작됐고, 수의사와 동물원 직원 등 30여 명이 수술에 참여했다.

현재 50살 안팎으로 추정되는 탄토르는 고령이라 깨어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수술은 무사히 잘 끝났다. 코끼리의 평균 수명은 50~70세다.

탄토르는 1991년 4월 마약조직이 소유한 농장에서 밀매된 다른 동물들과 함께 발견된 후 바랑키야 시 동물원으로 옮겨졌다.

미국 남성과 멕시코 여성이 강철로 만든 양국 국경장벽에서 결혼식을 올려 화제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에 사는 브라이언 휴스턴은 멕시코 신부 아벨리아 레예스를



AFP-연합뉴...

맞아 11월 18일 정오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이 열린 장소는 '희망의 문'으로 알려진 마-멕시코 국경장벽.

철제문이 열리면서 너덧 명이 좁게 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신랑 휴스턴이 순백 드레스를 입은 신부 레예스를 번쩍 안았다.

신랑 휴스턴은 지역일간지 샌디에이고 유니언 트리뷴에 "사랑엔 국경이 없다는 말도 있지 않느냐"며 "우리 둘은 여기 거대한 장벽에 의해 나뉘었지만 장벽 너머로도 사랑은 이어졌다"고 말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휴스턴은 구체적인 사정은 설명하지 않은 채 신부가 있는 멕시코 티후아나로 갈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들 커플은 신부 레예스가 그린카드(영주권)를 얻을 수 있도록 변호사를 고용했다. 1년간 준비한 끝에 이들은 국경장벽을 1시간 열어주겠다는 승인을 따냈고 장벽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다. 보더에인절스그룹이란 시민단체가 이들의 결혼식을 도왔다.

2013년 이후 장벽이 일시적으로 열린 것은 이번이 6번째로 알려졌다.

이들이 결혼식을 올린 장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경장벽 건설 공약에 따라 장벽 시제품이 세워진 지점에서 25km 떨어져 있다. ▼



‘장벽 없는 사랑’ 美-멕시코 커플 국경장벽 결혼식

글 옥철 로스앤젤레스 특파원